

中 '5·4 100년, 텐안먼 30년' 전방위 통제

SNS 정부 통제지침 나돌아 '탱크맨' 묘사 홍보영상 곤욕 텐안먼 암시 노래 모두 사라져

중국 정부가 중국 5·4 운동 100주년과 텐안먼(天安門) 민주화 시위(텐안먼 사태) 30주년을 앞두고 '기념시위' 등을 우려해 전방위적으로 통제 강화를 나섰다. 특히,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사회 불안을 야기하는 내용이 퍼지는 것을 강력히 통제함과 동시에 검문, 검색 강화 등을 통해 민감한 시기를 조용히 넘기려는 분위기를 보인다.

29일 베이징 소식통 등에 따르면 최근 중국 내 위챗(微信·중국판 카카오톡) 등 SNS에서는 여러 명이 등록돼 대화를 나누는 위챗 방에 중국 공산당과 국가에 불리한 글을 올리면 중국 정부로부터 엄중한

처벌을 받을 것이라는 내용이 떠돌고 있다. 또한, 법을 위반하고 소문을 퍼트리는 사람은 최고 1-8년의 유기 징역에 처한다면서 문제가 되는 위챗 방 관리자도 연대 책임을 져야 한다며 상호 단속을 강조하는 내용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 소식통은 "10명 이상이 등록된 위챗 방은 자동 검열이 돼 민감한 글을 올리면 안 된다"는 경고가 퍼지고 있다"면서 "특히 정치적 인 글이나 지도자 관련 글은 올리는 즉시 삭제되는 경우도 적지 않다"고 말했다.

중국 정부는 지난 25-27일 열린 일대일로(一帶一路·육상·해상 실크로드) 국제협력 정상포럼을 계기로 베이징(北京) 전역에 대한 경계를 강화했으며,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 주석은 30일 5·4운동 100주년 기념 연설을 통해 민심 수습에 나선 예정이다.

중국 5·4운동은 1919년 베이징 대학생들이 주도해 중국 전역으로 퍼진 친일파 처단 시위다. 중국 정부에서는 100주년을

맞아 대규모 집회가 생길까 봐 우려하는 것으로 보인다.

또한, 텐안먼 사태는 중국 공산당 정권이 1989년 6월 4일 베이징 텐안먼 광장에서 민주화를 요구하던 학생과 시민들을 진압해 수많은 사람의 목숨을 앗아간 비극적 사건을 말한다.

이처럼 중국 정부의 강력한 통제에도 잡음은 끊이지 않고 있다. 독일 라이카 카메라는 최근 텐안먼 사태 당시 맨손으로 진압군의 탱크에 맞선 '텐안먼 탱크맨(Tank Man)'을 묘사한 듯한 홍보영상을 만들었다가 곤욕을 치렀다. 영상에는 텐안먼 시위 당시 진압군의 탱크 행렬을 맨몸으로 저지하려 한 텐안먼 탱크맨을 촬영한 AP통신의 사진기자 제프 와이더너를 염두에 둔 듯한 장면이 나온다.

최근 애플뮤직 중국판, QQ뮤직 등 중국 내 유명한 음악 플랫폼에서는 '천녀유혼'의 주제가로 널리 알려진 '인간도(人間

道)' 노래가 자취를 감춘다. 이 노래의 가사에는 '젊은이가 분노하니 천지의 귀신이 온다. 대지와 강산은 어이하여 피바다가 됐다. 옛 땅은 어찌하여 돌아갈 수 없는 곳이 됐나'라는 구절이 나온다. 인간도를 작사·작곡한 황잔은 언론 인터뷰에서 이 노래가 텐안먼 사태를 다룬 것이라고 인정한 바 있다.

인간도를 비롯해 중국 내 음악 플랫폼에서는 텐안먼 사태를 다루거나 암시한 노래가 모두 자취를 감춘 것으로 전해졌다. 텐안먼 사태를 기념하는 술을 만들었다가 체포돼 3년가량 구금 생활을 한 천빙은 최근 '사회소란죄'(사단도발죄)를 적용받아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받았다.

텐안먼 사태를 야기한 '개혁의 아이콘' 후야오방 전 중국 공산당 총서기의 사망 30주기 행사 또한 가족 위주로 조용하게 열렸을 뿐 중국 공산당 차원에서는 어떤 행사도 열리지 않았다. /연합뉴스



박종구의 中國 인물 이야기



<초당대총장>

<179> 이상은

이상은(李商隱, 813-858)의 자는 의산으로 회주 하내 출신이다. 두목과 더불어 만당(晩唐)을 대표하는 시인이다. 10세에 부친이 병사하자 장남으로 집안의 생계를 책임지게 되었다. 시인 삼남서도절도사 영호초가 그의 재능을 알아보고 변려체를 전수하는 등 물심양면으로 지원했다. 영호초의 도움으로 25세에 진사에 급제했다. 교서랑, 동원절도서기, 검교공부낭중 같은 하급 직위를 역임했다. 837년 재상 영호초가 죽었다. 그는 경원절도사 왕무원의 부름을 받아 참모 겸 사위가 되었다. 영호초는 우승유파인 반면 왕무원은 이덕우파였다. 영호초의 아들 영호도는 그를 변절자로 여겨 혐오했다. 839년 장인의 후원으로 비서성 교서랑이 되지만 배신자라는 비난 속에 흥농

이 늘어져 있고, 천까지 비단과 철망이 얽혀 있으며, 아름답고 고와 어디에도 적용시킬 수 없다"는 평을 받았다.

그의 시에는 상징적 표현이 많다. 구체적으로 표현할 수 없는 정치상황이나 인간관계 등을 고도의 상징과 은유 기법으로 묘사했다. 정치적으로 성공하지 못하고 애정 면에서 사연이 많은 까닭에 신비적인 표현과 간접적 묘사로 의미를 전달했다. 무제시(無題詩)가 많은 것도 이런 이유 때문이다. 대표적 무제시인 다음 시를 보면 이런 면이 뚜렷이 나타난다. "만나기도 어렵고 이별도 어려워라. 동풍이 약해지니 온갖 꽃의 부름을 받아 참모 겸 사위가 되었다. 영호초는 우승유파인 반면 왕무원은 이덕우파였다. 영호초의 아들 영호도는 그를 변절자로 여겨 혐오했다. 839년 장인의 후원으로 비서성 교서랑이 되지만 배신자라는 비난 속에 흥농

그는 만당의 시인으로 기술어지는 나라의 운명을 깊이 인식했다. 등낙유

애정·서정시 빼어난 晩唐 대표 시인

현 현위로 좌전되었다. 이후 여러 지방관을 지냈지만 영호초의 견제로 변변한 자리를 얻을 수가 없었다. 무종 회창 2년(842) 다시 비서성 자리를 얻었지만 모친이 사망해 3년상을 치러야 했다. 3년상을 마칠 즈음 무종이 죽고 선종이 즉위했다. 851년 재상 영호초에게 매달려 태학박사라는 하위직을 얻었다. 영호초는 그를 소인의 무리로 여겨 거들떠보지 않았는데 그가 남긴 시를 읽고 마음을 바꿨다. "당신이 지위가 높아 말타고 행차하니 동각에 올라서도 그대를 엿볼 기회를 주지 않네(良君重施子馬 東閣無及許再窺)." 이후 유중녕이 검남동천절도사가 되자 그를 낙부판관으로 기용했다. 향리로 돌아와 세상을 떠났다.

그의 시는 난해하고 기묘하기로 유명하다. 전고(典故)도 은밀해 시의 의도를 알아내기가 어려웠다. 사람들은 그를 달재어(獺齋魚)라 불렀다. 글을 쓸 때마다 많은 책을 검열하고 좌우에 이를 수북이 쌓아놓은데서 유래했다. 인 용하는 범위가 고전뿐 아니라 풍문, 소설, 괴담에 이르기까지 다양했다. 당대의 온정군, 단성식과 함께 '삼십육체(三十六體)'라 불렸다. 두목과 함께 대소이두(大小李杜)로 추앙받았다. 시의 형식과 기교를 끌어올려 '신묘'하다는 소리를 들었다. 후일 "마치 백가지 보물

원(登樂遊原)이라는 오언절구에서 이러한 시대적 분위기를 잘 느낄 수 있다. "아름이 다가오고 있어 마음이 불안하네. 수레를 몰아 고원에 오르니 석양은 무한이 좋구나. 다만 이는 황혼에 가깝구나"(向晚意不適 驅車登高原 夕陽無好色 只是近黃昏).

애정시와 서정시에 뛰어났다. 금슬시(錦瑟詩)는 많은 젊은이들이 즐겨 암송하는 대표적 애정시다. "금슬을 열 어버니 공교롭게 오십 줄, 줄마다 기둥 하나 젊은 날이 떠오르네."라는 시구로 농염한 격조와 신비로운 경향으로 감동을 준다. '낙씨의 정자에서 최웅과 최원이 생각나 부치다'라는 시에서 탁월한 서정적 묘사력을 엿볼 수 있다. 마지막 구절인 "마른 연잎을 남겨 빗소리를 들려준다"(留得枯荷聽雨聲)는 아름답고 순결한 시적 이미지를 잘 전달한다.

그는 연상인 시인 두목을 좋아했다. 호방한 두목의 시를 높이 평가했다. 시 두사촌(杜司空)에는 "봄을 아파하고 이별을 아파하는데 마음을 기울인 사람은 세상에 오직 두목뿐이네"(刻意傷春復傷別 人間惟有杜司空)라는 구절이 있다. 그의 글은 서곤체(西昆體)라 하여 후학들이 존송했다. 번남갑집 20권, 번남을집 20권 및 육계생집 3권이 남아있다.



인니 집중호우 29명 사망 지난 27일(현지시간) 인도네시아 수마트라섬 남서부 봉콜루주(峇)에서 홍수로 범람한 물에 시가 지가 잠겼다. 집중호우에 따른 홍수로 최소 29명이 숨지고 10여명이 실종됐다. /연합뉴스

불턴 "美, 6자회담 선호 안해...중·러 제재이행 강화할수 있어"

존 불턴 미국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은 28일(현지시간)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거론한 6자회담과 관련해 미국이 선호하는 방식이 아니라면서 중국과 러시아의 대북제재 이행 강화를 촉구했다.

그는 "김정은은, 적어도 지금까지는 미국과 일대일 접촉을 원했고 그렇게 해왔다"면서 "6자회담식 접근은 과거에 실패했다"고 부연했다. 그러면서 "그렇다고 우리가 (다른 나라와) 상의를 하지 않는다는 의미는 아니다"라며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금요일에 아베 신조 일본 총리와 아주 긴밀하게 (상의)했다. 우리는 러시아, 중국, 그리고 확실히 한국과 상의한다. 문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는 일대일 외교가 최선이라고 생각하느냐는 질문에 "(6자회담이) 배제되는 건 아니지만 우리(미국)가 선호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답했다.

그는 "김정은은, 적어도 지금까지는 미국과 일대일 접촉을 원했고 그렇게 해왔다"면서 "6자회담식 접근은 과거에 실패했다"고 부연했다. 그러면서 "그렇다고 우리가 (다른 나라와) 상의를 하지 않는다는 의미는 아니다"라며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금요일에 아베 신조 일본 총리와 아주 긴밀하게 (상의)했다. 우리는 러시아, 중국, 그리고 확실히 한국과 상의한다. 문제

인 대통령도 몇주전에 (미국에) 다녀갔다"고 강조했다.

불턴 보좌관은 "트럼프 대통령은 여전히 김정은과의 3자회담 가능성을 기대하고 있고 그에 대해 꽤 생각이 분명하다"면서 "(대화의) 문은 여전히 열려있고 대통령은 여전히 올바른 시점에 3차 (북미) 정상회담을 갖는 데 준비돼 있다"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에게 지금은 대북 단계적 접근이 더 매력적으로 느껴지지 않겠느냐는 질문에는 "과거 정책을 보면 답은 '아니오'다. 단계적 접근을 취했던 과거의 정책들은 모두 실패했다"고 일축했다. /연합뉴스

美합정 中 반발 불구

올 4번째 대만해협 통과

미국 국방부가 중국의 반발에도 미 해군 합정의 대만해협 통과 횟수를 늘리는 가운데 28일(현지시간)에도 미 합정 2척이 대만해협을 지나갔다고 로이터통신이 미 국방당국을 인용해 보도했다.

미 합정의 대만해협 통과는 미중간 긴장을 고조시킬 위험이 있지만, 중국과 마찰을 빚고 있는 대만 입장에선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대만을 지지하고 있다는 표시로 해석할 수 있다고 로이터는 분석했다. 이번에 대만해협을 통과한 미 합정은 구축함 2척으로 윌리엄 P. 로런스함(DDG-110)과 스테덤함(DDG-63)이다.

미 해군 7함대의 클레이 도스 대변인은 성명을 통해 "이들 합정의 대만해협 통과는 자유롭고 개방된 인도-태평양에 대한 미국의 의지를 보여주는 것"이라고 밝혔다. 남중국해 영유권을 주장하는 중국에 맞서 이 지역의 무해통항권을 사수하려는 미국의 의지를 보여주기 위한 것이라는 설명으로 해석된다.

과거 미 합정은 1년에 한 번 정도 대만해협을 통과했지만, 작년 하반기부터 통과 횟수가 늘고 있다. 미 합정은 올해 들어서 1월 24일, 2월 25일, 3월 24일, 4월 28일 4차례나 대만해협을 지나갔다. /연합뉴스

더불어 사는 삶을 위하여-

부동산 투자!
(주)오천경매와 함께 하면 성공합니다!

상담문의. 최 선 규 H.P 010-3605-5000